

# 공정적이고 솔직한, 성공한 당신!



송 군 섭

Fila Korea(주) 상무이사 · CIO  
gssong@fila.co.kr

● 필자가 처음 컴퓨터를 접한 것이 1978년이고, 1982년에 대학원에서 정식으로 공부를 했으니 벌써 25년 이상 IT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인가. 초기에는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에 더 흥미가 있었으나, 재정적인 사정과 몇 년간 옆에서 본 학자의 모습은 필자가 바라던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었고, 그러던 차에 한 선배님의 권유로 방향을 돌려 1987년 회사에 입사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했고, 또한 용어가 전문적이어서 컴퓨터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도 자주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아무도 내 결정에 이의를 달지 않았고, 그저 그들이 원하는 작업을 해내기만 하면 되었다. 때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철야도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 성과를 높이는 등 힘든 줄도 모르는 나날을 보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요 사업부장과 회의를 하는데 사장님이 질문을 하셨다. “컴퓨터의 어떤 기능이 경영활동에 가장 중요한가?” 평소 그런 질문에 익숙치 않던 필자는 ‘신속, 정확’ 외에 시원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부장이 “한 사람이 입력하면 동시에 여러 사람이 공유가 가능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순간 ‘그건 당연한 것인데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떠올리는데, 사장님께서 무릎을 탁 치며 참 멋진 대답이라고 칭찬하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창피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필자는 그때 비로소 IT부서 사람들의 세계와 경영하는 사람들의 세계는 너무 차이가 크고, 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경영자는 둘째 치고, 일반 사용자들과도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때부터 ‘도대체 경영이란 무엇이고 경영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기회가 되면 “당신이 하는 일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퍼부었다.

더불어 틈만 나면 경영관련 서적을 사서 읽고 또 읽었다. 1년에 한 50권쯤 읽었다. 그렇게 약 3년 정도 지나니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필자도 IT전문 용어를 기급적 사용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는 책 속에 나오는 많은 사례들을 습득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현장의 필요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먼저, 당신 상사부터 성공시켜라

또 한번의 전환은 어느날 상사가 부임한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IT부서 책임자로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온다는 말인가? 상사가 부임한 후 1년 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은 회사를 옮겼다.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힘든 상황을 벗어났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무척 흥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면 또 다시 회사를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였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당신이 모시는 상사를 성공시키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강연을 듣고 확연히 깨달았다. 이후 상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의논하고 하니 상사의 성공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마음이 가볍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다. 덕분에 타부서 직원들이 유사한 고민을 할 때마다 필자의 경험으로 충고를 해 줄 수 있었는데 그들 역시 진심으로 수긍하며 고마워했다.

많은 회사에서 IT 부서는 누구 보다도 회사 일을 폭넓게, 세부적으로 알고 잘 관리하면서도, 인정받기 어렵고 비용만 과다하게 사용하는 부서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 성공을 위한 네 가지 요건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하기 위한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건강’ 해야 한다. 가장 기본이므로 생략한다.

둘째, ‘전문가’ 다워야 한다. 상사가 물어봤을 때 즉각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공을 위한 요소가 무엇인지, 각각 어떤 수준에 있는지,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견고한 답을 만들어야 한다. 참고로 바람직한 방법중 하나는 주변에 전문가를 가까이 두고 지식 Pipeline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인기있는 테마가 주말이면 관련 지식인들이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

셋째, 윗사람과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 일의 진행, 인원관리, 비용, 상사가 원하는 일 등의 공통된 인식 대해 상사와 깊이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기술 부족보다는 상대 부서의 마인드 부족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경우 부서장을 설득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린다. 또한 깊이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평소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실행 능력’ 이다. 일이 주어지면 긍정적으로 해내려고 하고, 주어진 일을 약속한 기한 내에 해낼 수 있도록 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상사는 당신에게 강한 인상을 받을 것이다.

5년 후 10년 후 큰 성공을 거둔 당당한 당신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Users

